강진군, 생활인구 유입 총력… 군민 5만명 달성 도전

4개 전략·16개 실천 과제 발굴 5개년 계획 수립
신규마을 조성·주택 신축 지원·푸소체험 운영 등

강진군이 인구늘리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5만명 달성 도전에 나섰다.

강진군은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대응 5개년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진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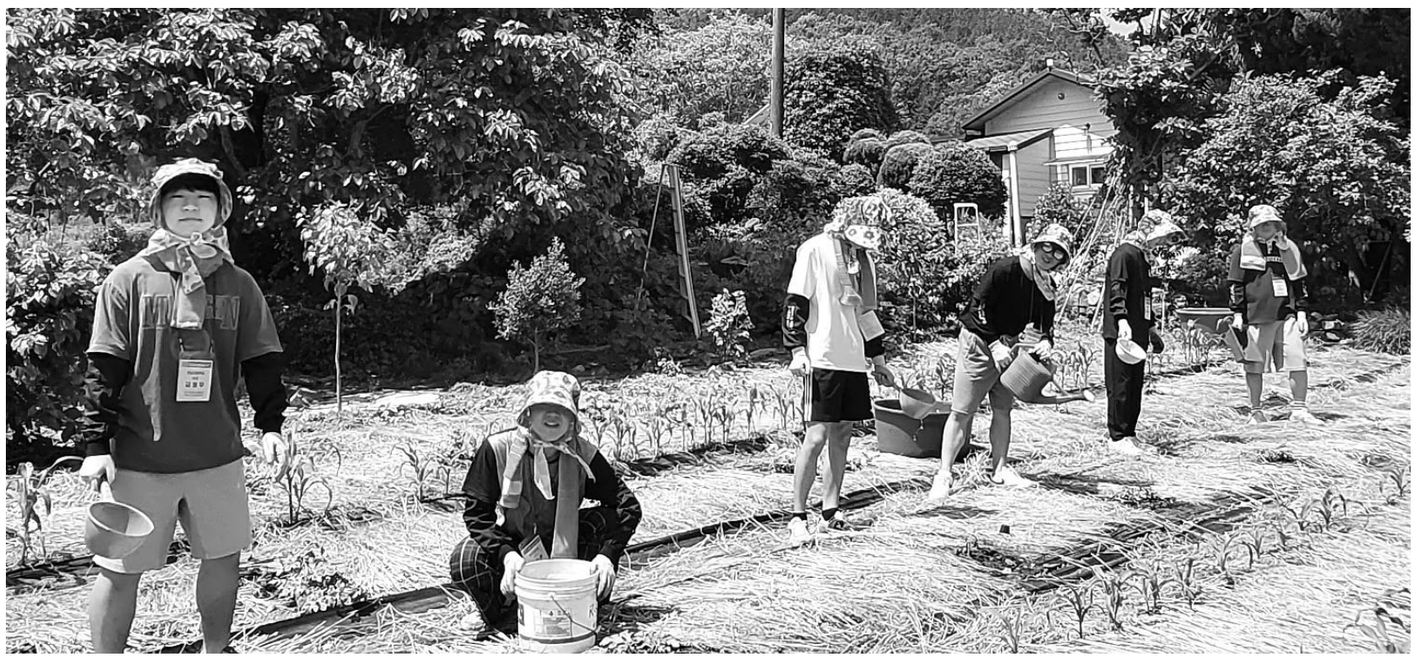
이에 따라 군은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남도답사 1번지, 글로리 A 강진'을 비전으로 삼고, 4개 전략, 16개 실천 과제를 도출해, 인구 소멸 위기에서 탈출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실제 인구 유입과 생활인구 확대 투트랙으로 지역소멸을 저지한다. 먼저 은퇴자와 귀농·귀촌인 등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해 ▲신규마을 조성사업 ▲주택 신축 지원사업 ▲빈집 리모델링 지원을 추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강진 푸소 체험 운영 ▲푸케이션(푸소+워케이션) 운영 ▲병영 불금 불파 축제 개최 등 관광사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 지역 연계형 사업으로 ▲강진-광주 동구와 함께하는 지역 연계 & 협력 사업 ▲지역상생 강해영(강진·해남·영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밖에 ▲옛 성화대학을 활용한 문화융합창업 플랫폼 구축 ▲사이버 군민 제도 운영 ▲각종 지원센터(맘편한센터, 늘봄센터, 어울림센터) 운영 등 모두 7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주민등록 인구는 이제 한계에 도달해 생활권을 두고 오고 가는 생활인구 유입이 인구 증가의 해답"이라며 "강진은 푸소시즌 2를 통한 주거와 일자리 제공, 빈집 리모델링 정비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인구 5만명 달성의 목표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군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남도답사 1번지, 글로리 A 강진'을 비전으로 4개 전략, 16개 실천 과제를 도출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소멸 위기 정책 중의 하나인 강진 푸소 체험. 〈강진군 제공〉

강진 6·25 민간인 희생자 증언 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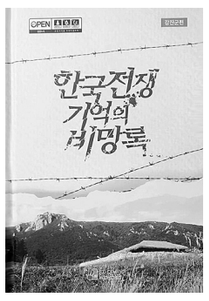
동학혁명기념사업준비위 '기억의 비망록' 113명 증언 생생

강진군이 6·25 한국전쟁을 민간인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술한 한국전쟁 증언록 '강진군 한국전쟁 기억의 비망록'이 출간됐다.

강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준비위원회 이름으로 발간된 이 책에는 6·25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부모들에게 전해 들은 후손들의 증언이 생생하게 실려 있다.

책은 총 390여 페이지 다섯 장으로 구성됐으며, 1장부터 3장까지는 일제강점기 강진군 항일독립운동 활동과 해방 이후 미군정시절 건준위 및 인민위원회 활동, 여순사건 파장 등을 다루었고, 4장 해방 이후 한국전쟁 시기 피해 관계인 구술에서는 좌·우익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현장 증언을 채록해 가슴 아픈 비망록을 완성했다.

특히 4장 피해 관계인 구술에는 총 113명의 증언자들이 증언한 332명에 대한 희생자들의 피해 상황이 생생하게 드러나, 이 땅에 두 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알렸다.

책은 자료를 토대로 한 재구성에서 그치지 않고, 필진들이 강진군 11개 읍면과 또 광주 서울 등 출향인을 찾아 면담하고 유가족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증언 채록과 현장 확인을 통해 강진인이 겪은 아픔을 담았다.

책에는 윤순상(98·성전면)씨가 작천면에서 의사로 지내던 형이 당시 인민위 부위원장을 맡아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에 따라 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가 경찰 수복 후 경찰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사연 등 증언들이 빼곡히 들어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화순군민 금연 시도 1년새 10%P 감소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고회…지난해 47.1%, 전남 평균 웃돌아

금연에 도전하는 화순군민 비율이 1년 새 10%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은 최근 '2022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보고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 승인통계 조사인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화순군과 질병관리청,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진행했다.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근거해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 산출과 지역 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류소연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가 수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화순지역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은 47.1%로, 전년(58.9%)보다 11.8%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화순 금연 시도율은 전남 평균(37.7%)을 웃돌았다.

화순 지역민들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1년 25%에서 2022년 27.8%로 올랐다. 역시 전남 평균(22.6%)보다 높았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같은 기간 22.8%에서 21.6%로, 1년 새 소폭 줄었지만 전남 평균(19.6%)을 웃돌았다.

우울 증상 유병율은 전년보다 0.7%포인트 오른 3.9%로, 전남 평균(3.1%)보다 높았다.

화순군 보건소 관계자는 "조사 자료는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장성에 기부하고 사찰음식 대가의 음식 체험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다음달 첫선
정관 스님 음식 시연·오찬·차담
백양사 누리집 예약창서 신청

장성군이 마련한 이색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이 7월 첫선을 보인다.

장성군은 오는 30일까지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들에게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권'을 답례품으로 고를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고 밝혔다.

정관 스님 사찰음식은 장성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이다. 다수의 해외 미디어에 소개되며 한국음식, 일명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를 선도하고 있다.

사찰음식 체험을 희망하는 기부자는 답례품 목록에서 체험권을 선택한 뒤 장성 백양사 누리집 예약창을 통해 '7월 15일 토요일 체험'을 신청하면 선착순 선정된다.

정관 스님 사찰음식 시연과 오찬, 마음을 나누는 차담 등 3시간 가량 소요될 예정이며, 모든 체험객에게 정관 스님이 직접 담근 전통장류가 증정된다.

군은 추가 수요와 정관스님 일정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도 사찰음식 체험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들에게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권'을 답례품으로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사찰음식 요리 중인 정관 스님. 〈장성군 제공〉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이)음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관 스님 사찰음식 체험 외에도 백양사 템플스테이, 벌초대행 서비스 할인권, 명품 농축산물, 장성사랑상품권 등 47개 품목 165개의 답례품이 마련돼 있다.

한편, 장성군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대상은 장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생산채취가공제조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양파 수확 전 과정 기계화

내년까지 32억 투입…노동력 68.8%·비용 46.7% 절감 효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해보면 대창리 양파밭에서 기계 수확 시연회를 열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이 내년까지 32억원을 들여 양파 수확을 위한 모든 과정 기계화에 나선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해보면 대창리 양파밭에서 '양파 기계화 우수 모델 육성을 위한 수확 시연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양파 재배 농가와 함평군, 지역농협 관계자 50여 명은 이날 시연회에 참석해 양파 줄기 절단기와 자주식 수집기 가동 과정을 지켜봤다.

6월은 양파 수확 시기로, 농촌 현장에서는 해마다 인력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함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 16억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32억원을 들여 양파 수확 기계화 면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양파 재배 전 과정을 기계화하면 노동력은 기존보다 68.8% 줄고, 작업 비용은 46.7%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나주 읍·면에 9월부터 마을버스 도입

20일까지 운송사업자 모집

나주시가 읍·면 소재지에서 자연마을까지 순환 운행하는 '마을 버스'를 도입, 9월부터 운행한다.

대상지역은 남평읍을 비롯해 동강, 공산, 다도, 금천 등 11개 읍·면이다.

대상에서 빠진 반남면은 마을버스 대신 각 마을까지 주민을 운송하는 마을 택시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마을버스를 도입, 운행하면 적게는 1~2차례, 많아도 3~4차례에 그쳤던 버스 운행 횟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

나주시는 마을버스를 운영할 운송사업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마을버스가 본격 운행되면 버스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농촌 마을 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담양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80세 이하 30만원으로 확대

담양군이 여성 농업인에게 주는 행복바우처 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다.

지원 대상 나이는 75세 이하에서 80세 이하로 확대한다.

담양군은 올해 군비를 추가 편성해 행복바우처 1인당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행복바우처는 오는 14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한다. 대상자에게는 오는 8월께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이 밖에도 여성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시작했다. 마을 공동급식은 기존 연 1회 지원에서 봄·가을 각 1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흥 표고버섯 음료, 2년만에 재출시

장흥군을 대표하는 특산물 원목표고버섯을 활용해 만든 '표고버섯 음료'가 재출시됐다.

장흥표고음료는 1999년 개발돼 연간 60만캔 이상 꾸준히 판매된 지역 대표 음료다.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탄탄하게 자리매김했으나 지난 2021년 생산공장 화재로 생산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정남진장흥농협과 다인음료,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재생산 협의에 돌입했고, 장흥군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음회 행사를 추진하는 등 더 나은 음료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기존 제품을 보완한 결과, 이전보다 칼로리를 낮춘 새로운 버전의 표고음료〈사진〉가 출시됐다.

새로운 표고음료는 정남진장흥농협 하나로마트, 지역 내 마트, 특산물 판매장(토요시장) 등지서 판매에 들어갔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